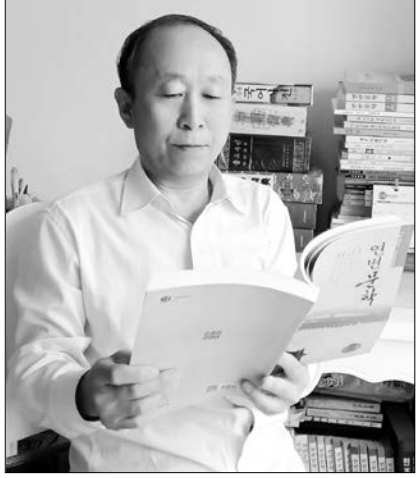


[나와 《길림신문》]

◎ 박병선

젊은 시절 맺은 인연... 《길림신문》은 훌륭한 스승



저자 박병선

60여년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일들이 꽤나 된다. 이 가운데서 《길림신문》과 함께했던 청춘의 날들이 퍼그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다. 내가 《길림신문》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35년이 되었다.

지난 90년대초까지만 해도 내가 출근하던 공장에서는 6부의 《길림신문》을 주문해 부서마다 나누어주었다.

1990년 봄의 어느 날, 나와 동료는 공장의 일로 길림신문사를 찾아갔다. 그때 리금남 사장이 직접 우리 둘을 열정적으로 접대했다. 점심식사 자리에서 리사장이 이런 우스운 말을 했다.

“당신들이 보다 싶어 일신의 천금이라고 불리는 나의 눈은 남들의 눈보다 특별히 작아서 ‘감자눈’이라는 별명도 있소. 나의 평생 소원이 뭘지 아오?”

나와 동료는 서로 쳐다만 볼 뿐 대답을 못했다. 뜬금없이 리사장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반백년을 살아오면서 여자들한테서 남자답게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 유감중의 제일

큰 유감이요. 이쯤 말하면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만하겠지. 하하하...”

리사장은 가슴이 뻥 뚫릴 것처럼 한바탕 통쾌하게 웃었다. 의문이 풀린 우리도 따라 하하하 웃었다.

“지금까지 한 말은 조용한 우리 밥상 분위기를 돌리기 위한 우스개라고 받아주소. 나 이렇게 못나도 사업만은 빈틈없이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녀성들한테서 종종 ‘사업사나이’라는 말을 듣고 있소.”

리사장의 얼음 우에 표주박 밀듯 유머가 가득한 말에 우리는 푹 빠져들었다.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쉽지만 헤어져야만 했다. 리사장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런 부탁을 했다.

“당신네 공장에서 우리 신문은 많이 주문해주니 고마운 건 더 말할 것 없고 앞으로 우리 신문의 융성발전을 위해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소. 비단에 꽃을 수놓는 자수가가 되어주면 안될가? 선전을 책임진 선생님들이라 좋은 글을 많이 쓸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소.”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동료는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리금남 사장의 말에 섣뜻 자신있게 대답했다.

이때부터 나는 《길림신문》을 중시해 보기 시작했다. 연변의 성내 기타 지방의 소식들도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성구나 속담을 비롯해서 비유나 묘사, 서두나 결말이 잘된 글은 필기책에 베껴두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면 다시 읽어보기도 했다.

나는 신문을 본 다음 일주일에 한번씩 신문을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에게 우편으로 부쳐보냈다. 신문 보

기를 즐기고 실농군인 아버지는 신문을 받아보고는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보내오곤 했다.

“신문을 참 잘 꾸렸구나. 성내 우리 민족의 소식들까지도 알 수 있고... 몇십년을 땅과 씨름해온 나지만 신문을 읽고 나서는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농사에 관한 과학기술정보 같은 것이 실린 신문이면 빼놓지 말고 꼭 부쳐보내오...”

“요즘 저녁이면 우리 집 문고리에 불이 날 지경이다. 내가 신문에서 본 다채로운 소식과 과학영농지식들을 동네에 나가 선전한 데다가 또한 실제로 곡식의 단위당 수확고가 전보다 훨씬 높으니 글썽 우리 집에 밭길을 별로 안 돌리던 사람들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온다...”

.....

리금남 사장과 나의 만남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몇년간 부지런히 《길림신문》에 글을 써서 보냈다. 박문화, 문상화 등 편집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대해주었다. 글을 많이 써보내라며 원고지 2~3권씩 주기도 했다.

특히 광고처 처장직을 맡았던 리만화선생님은 “멀리 화통에서 찾아왔는데 그제 돌려보낼 수야 없지. 내가 밥을 사야지.”라고 하면서 번마다 나를 푸짐한 점심밥상으로 접대하곤 했다.

또 지금까지 나의 머리 속에 깊이 조각되어 있을 수 없는 기사는 문상화

선생님이다. 그때 선생님이 내가 30살을 먹도록 총각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집으로 청해 식사대접도 했고 나에게 사촌 처제를 소개해준 적도 있다.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따뜻한 편집선생님들이었기에 내가 출근하던 공장이 파산된 후 나는 배듯한 살림임에도 몇년간 계속 《길림신문》을 자비로 주문해보았다.

지금도 나는 홍옥선생님이 편집한, 나와 안해 그리고 딸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배합한 문장이 실린 신문(2006년 10월 10일)을 먼저 하나 올려서라 비닐에 싸서 대물림보배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사진을 첨부해서 발표된 글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이후 나는 해외에 나가 일하는 피곤한 몸이라 10여년간 글을 쓰지 못했다. 어려서 동안의 해외생활을 종말 짓고 귀국한 나는 재작년부터 여유시간이 있게 되자 스러져가던 불이 입김에 되살아나듯이 인연이 끊겼던 《길림신문》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기쁨에 콩 나듯 글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길림신문》과 나의 인연은 쪽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150여편의 기사, 동시, 시조, 수기, 수필을 국내외 신문, 잡지, 방송에 발표했고 여러가지 상을 수차례 받을 수 있는 것도 《길림신문》의 좋은 글들이 나에게 더없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길림신문》의 40쪽 생일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찍어온 발자취에서 내뿜는 금빛찬란한 업적에 큰 축하를 보낸다. 앞으로도 《길림신문》이 걸어갈 길이 만방에 향기 가득 풍겨 봉접이 날아드는 꽃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전망대]

2 연승으로 경기장을 들끓게 하라



4월 22일,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10구역에서 축구팬들이 연변팀의 승리를 환호하고 있다.

저곡에서 해매던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이 바닥을 힘껏 차고 올린 승부처는 모습은 아름답다. 단결의 승리였고 강한 의지와 욕망의 표출이었다. 지난해 5월 25일 강서려산을 2:1로 이긴 후 홈장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지 못한 연변팀, 올 시즌 들어 연속 4경기 원정에서 강팀들에 휘둘리던 연변팀이 거둔 승리라 많은 팬들은 가슴까지 울렁거렸다고 한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연변팀은 첫 승의 기세를 휘몰아 룡녕철인에 1:7로 패한 심수청년인팀을 홈장에 불러들여 2승을 노리게 된다.

연변팀에서 활약하던 한광휘선수가 뛰고 있는 심수청년인은 지난해 올드리그 3위로 보충 승격되었는데 현재 2승 3패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순위는 비록 연변팀보다 앞서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산남사와 광서평과하로와 같은 약팀을 홈장에서 이겼을 뿐이고 중경동량룡과 상해가정회룡에 0:3, 1:2로 각각 패한 후 지난 22일에는 룡녕철인에 1:7이란 큰 점수차로 패하여 기가 크게 상한 상태이다.

심수청년인은 올 시즌에 38번 노벨, 9번 메인지라, 5번 말체치 등 용병을 영입했지만 5경기만 그 소화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실력이 수수하다. 연변팀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선수들도 주흥, 호명, 황가준

등을 제외하고는 알 만한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다. 총적으로 심수청년인은 올드리그를 뛰던 원우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통해 실력은 갑급리그의 하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약팀에 속하지만 4-3-3, 4-2-3-1 진영을 위주로 사용하는 심수청년인은 탄탄한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라인을 뚫는 위협적인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난 룡녕철인과의 경기에서도 18살 나이는 황계준(45번)이 8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는데 36년 뽀빠이(21살)과 더불어 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변팀은 중원을 통제하는 한편 진영을 밀고 들어가 측면 돌파와 짧고 빠른 패스의 원활한 배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압도하여야 한다.

연변팀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승리에 대한 욕망과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연변축구 정신의 핵이기 때문이다. 김태연, 박세호, 천창걸, 서계조, 왕봉, 리홍 등의 몸에서 발하는 그 정신이 팀의 원동력이 되고 승리를 이끄는 기발이 될 것이다.

첫번째가 있으면 두번째가 있기 마련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연변팀이 2연승으로 축구팬들을 경이롭게 다시 불러들이기를 희망한다.

/김태국기자

제 63 회 고등교육박람회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장춘서

제 63 회 고등교육박람회 및 교육강국 건설·고등교육 개혁발전 포럼 소식공개회가 4월 22일 오전 장춘시에서 있었다. 중국고등교육학회, 길림성교육청, 장춘시중국고등교육학회 지능교육연구분회, 할빈공업대학, 길림대학 등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소식공개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회의에서 중국고등교육학회 부회장 리가준이 제 63 회 고등교육박람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장춘시 중철·장춘동북아국제박람센터에서 ‘융합·혁신·선도: 고등교육강국 건설에 봉사’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인재 일체화 발전을 위한 전시 및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고등교육박람회와 ‘교육강국 건설·고등교육 개혁발전 포럼’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등교육박람회는 ‘1년 두차례’에서 공식적으로 ‘1년 한차례’로 개최 빈도를 조절했다. 개편 및 업

그레이드된 고등교육박람회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위치 설정, 핵심 사업 집중, 품질과 효율 제고를 추구하며 특색을 부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번 고등교육박람회의 주요 특징은 세가지 ‘집중’과 세가지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집중하고 국가 전략을 지원하는 성과 전시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차원적으로 중국 고등교육의 고품질 발전 성과, 경제사회발전 기여한 실적, 고등교육 분야의 신기술 및 신장비 적용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동북지역 진흥 전용 구역 마련, 1.6만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에 90여개 대학, 10여개 과학연구원 및 기업이 참여하여 과학기술혁신 성과와 동북지역 종합 진흥 지원 사례를 전시한다. 그중 20여개 주요 대학을 지정 초청해 과학기술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종합개혁에 집중하고 교육·과학기술·인재 일체화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협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고등교육박람회는 교육부 사국(司局) 부문의 업무 배치, 대학간 경험 공유, 학교와 기업 쌍방향 협력을 지원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개혁의 최전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학 과학기술혁신의 실질생산력 발전 견인, 청년 과학기술인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회 및 교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등교육박람회는 교육부 학생국의 지도하에 ‘천교만기(千校萬企) 수요과 공급 접목회’ 및 동북지역 2025 학년 졸업생 인재 쌍방향 선택회를 개최해 동북지역 산학간 인재 수요 공급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유치·육성과 산업계-교육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산업-대학-연구기관의 심층적 융합에 집중하고 산학 협력과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연계·확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고등교육

박람회는 국가 전략 요구를 관철하여 동북지역 전면적 진흥의 실제 수요와 전국 대학의 풍부한 과학연구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한다. 동시에 동북 3성 1구(룡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 기업의 수요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정부-산업-대학-연구기관 협력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대학-지역, 대학-대학, 대학-기업간 협력을 체계화 과학기술 성과의 동북지역 차이를 지원한다.

중국고등교육학회와 길림대학이 공동 주최하는 ‘교육강국 건설·고등교육 개혁발전 포럼’은 고등교육박람회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포럼은 1개 주포럼과 14개 분포럼으로 구성되며 국가 발전 대국에 답하며 교육강국 건설을 위한 고등교육의 특성과 실현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주동기자

연길시 단청사회구역 ‘얇은북춤’ 강좌 마련



4월 21일, 연길시 북산가두 단청사회구역에서는 연변가무단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사상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얇은북춤’ 특별 강좌를 마련했다.

단청사회구역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얇은북춤’ 종목 주급 전승인 강해룡을 초청하여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강해룡은 참가자들에게 ‘얇은북춤’의 연주 자세와 타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가장 기초적인 리듬부터 직접 손잡고 가르쳤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지도 아래 정확한 손바닥 위치로 북면을 타격하는 방법과 힘 조절, 리듬 감각을 세심히 배우며 ‘얇은북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집중하여 강의

를 경청하며 강사의 시범을 꼼꼼히 관찰했다. 하나하나의 리듬이 담겨있는 운물에 따라 북치는 힘과 절수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점 북반쳐 오르는 북소리와 함께 현장 분위기는 더욱 열기로 차넘쳤다.

이번 학습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전통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연변 타법을 상세히 소개하며 가장 기초적인 리듬부터 직접 손잡고 가르쳤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지도 아래 정확한 손바닥 위치로 북면을 타격하는 방법과 힘 조절, 리듬 감각을 세심히 배우며 ‘얇은북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집중하여 강의

/리성복특약기자

제 8 회 북방소수민족게이트볼경기 산동 연태에서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과 전면건강 목표를 기층에 시달하고 북방 소수민족의 단결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을 취지로 한 제 8 회 북방소수민족게이트볼경기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산동성 연태시에서 개최되었다. 동북 3성과 동관, 청도, 연태 등 지역에서 모여온 26개 게이트볼팀과 200여명 선수, 감독, 심판원들이 이번 게이트볼경기에 참가했다.

2015년에 설립된 북방소수민족 게이트볼전목회는 길림성의 연길시, 왕청현, 흑룡강성 해미시, 룡녕

성 안산시, 내몽골 울란호트시 등 지역을 돌면서 수차의 게이트볼경기를 주최하여 광범한 로년 게이트볼 애호가들의 한결같은 칭찬을 받았다. 이날 개막식에서 광명준 회장은 “이번 경기를 통해 서로 면목을 익히고 정을 나누면서 뜻깊은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간의 각축 결과 3인조 경기에서 연길 1팀 신형호팀이 우승을 하고 5인조 경기에서는 청도 석양 1팀이 우승을 했다. 제 9 회 북방소수민족게이트볼경기는 래년에 심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리삼민